



도시농업, 텃밭이 주는 의미는 도시의 자연으로의 생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도시농업이 대세다. 주거환경도 아파트에서 단독주택 혹은 타운하우스로 바뀌고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에서의 생활은 꿈으로 물리고 있다. 흙을 밟지도 약간의 딸과 식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여가시간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너무 도시화의 폐마른 삶에 침침 지쳐온 결과일 테다.

자연이 가져다 주는 건강함, 그것은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딸과 심미적 아름다움과 마음의 안정 혹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응과 교감, 자람과 꽃피, 열매, 그리고 작은 수확의 기쁨이 그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 생산, 여가라는 단어 나 인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때문에 우리는 도시농업이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시에서 상추를 심고 물주고, 비료주고, 수확하고 또 다른 채소를 심고 가꾸고, 수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과 많이 닮아있다.

그러나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업'은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 물고 있는 '도시농업'이란 도시에서 영위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다. 때문에 생산이라는 의미가 가장 큰 '농업'이란 표현을 삶의 터전에서 자연을 향유하고자 하는 문화적 접근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문화(culture)란 인류의 지식·신념·행위의 총체로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초기 인류에 있어 경작은 생명이었지만 영의 산물이 생기게 되면서 이가와 교양, 예술화 되었다는 뜻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이란 의미에서 좀 더 진화된 예술, 문화의 경지로 끌어 올려놓아야 우리의 '도시농업', '텃밭'문화가 초기적 접근에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회사 내에서 우리 나름의 자연과 농업, 경작, 그리고 예술과 문화를 담은 뜻으로 나티컬처(Naticulture)라고 명명하여 2010년부터 이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들만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사실 필자가 의도한 바는 도시와 농업이 하나가 되는 시대, 즉, 농업이란 자연 파괴(작물을 재배하거나 폭죽을 하기 위해 숲과 자연을 훼손하여 생산기만을 만들어 왔으므로)의 행위를 중단하고 도시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작물을 지역의 작은 공간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하여 원래의 경작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시대를 갈망하여 명명한 것이다. 최근 공정형 농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머지않아 시간 안에 건물 외벽은 모두 식물로 덮힌 아파트형 농장에 각종 채소와 약재, 그리고 동물들이 생산되고 이를 부산물은 다시 에너지화하여 재활용하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때가 되면 현재의 많은 농정지는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가꾸어진 전원주택에서 도시의 중심가에 있는 생산원장으로 출근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잉여생산물이 늘어나는 가치를 지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노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 개념의 '도시농업'에서 문화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알맞은 문화적 이름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티컬처가 가져올 인류의 행복은 지구를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도시농업(?)은 우리 도시인들의 도시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기존에 살았던 '현장리포트' 코너를 좀 더 강화하여 실제 현장 조경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조경기법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간신문—

식생매트의 이용



우리나라 조경 업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재배의 규격은 3지, 4지, 혹은 2~3분얼 같은 작은 사이즈의 재배 규격이 많다. 이는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운송 등에 쉬운 장점이 있는 규격들이다. 처음 조경에 숙근초들을 적용하면서 생산 업체가 많지 않고 공급보다는 수요가 늘어 나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규격이라 생산자 중심의 규격이라 생각된다. 또 이 규격들로 식재 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식물이 자라 지표면을 피복하거나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갖게 되는 데에는 최소 3~4달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세나 사초 등 그라스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 생산자가 늘어나고 수요자의 요구가 빠른 시간내에 완성된 형태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부에서 생기고 필요에 따라서 3지, 4지의 식물들을 밀식하여 뻗뻗하게 보이도록 식재하는 형태도 있다. 물론 지금도 1년생 초화들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밀식하여 식재하고 있다.

식재 후 완성형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화분 혹은 포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식물의 다 자란 형태로 키워 식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식물을 매트처럼 길러 현장에서 퍼줄 조각을 맞추듯이 피복의 효과를 보는 것이 있다.

먼저 큰 화분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우리꽃에서 2~3년 전부터 우리들을 통해 많은 제안 혹은 사례 등을 말씀드린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3지, 4지나 식생매트로는 볼 수 없는 식물의 완성된 크기이다. 초장과 식물의 형태를 거의 원래의 크기로 길러 식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재후 볼품없고 완성도 면에서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종을 모두 생산할 수도 있다. 단지 재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송이 쉽지 않으며 식재시에도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식물을 상자에서 키워 매트의 형태로 만든 제품들로 식생매트의 경우 식재 공사 후 바로 완성형을 만드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이며, 서울, 경기권에도 우수한 매트를 생산하는 여러 업체가 있다. 수크령, 백문동, 옥새류 등 생육이 빠르면서 뿌리 엉김이 좋은 식물들을 주로 사용하며 매트와 매트를 밀착시켜 시공함으로써 완성형의 형태를 만든다. 매트의 장점은 다른 형태에 비해 시공이 빠르다는 것과 대상 면적을 완벽하게 피복시킨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은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현재 많이 쓰는 혼합식재의 개념인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어지게 하는 것과 현장별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피복용이 아닌 식생매트를 이용한 혼성·혼합식재를 고려해야 할 때다. 품종마다 생육 특성이 달라 매트로서의 생산이 수월하지는 않다. 매트의 경우 얇고 넓은 형태에서 심근성 수종이나 생육이 느린 품종은 생육이 약하거나 피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키가 큰 품종의 경우 뿌리의 지지가 약해 쓰러지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맞는 수종을 선별하고 직접 키워 실험해 보고 다양한 고려를 통해 적용가능한 식물을 늘리는 것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만족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꽃에서 시공한 현장 소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평화로 광장과 서울시 의회의 건물로 보도 블록이 깔린 지역으로 이른 봄 매트를 이용한 혼성 정원이다. 봄에는 튤립과 1년생 초화가 꽃이 피고, 이후 6월 초순까지 양귀비를 피워 좋은 효과를 받은 곳이다. 사진3은 청계천으로 1년에 20회 이상 범람을 하는 장소로 강한 물살에도 쓸리지 않는 뿌리가 강한 품목과 쓰러져도 회복이 빠른 품목을 선정하여 시공하였다. 사진4의 경우 광진구 교통섬이며 다년생과 1년생 초화를 혼합 배치하여 시기별 일부 초화만 교체로도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게 하였다. 사진5의 경우 가을에 아스타가 피어있는 것을 그대로 시공한 경우로 포트에서처럼 이식 후 스트레스로 꽃이 지 버리는 경우가 없이 그대로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현장이 있으며 가능한 한 봄부터 가을까지 혹은 혼성식재로 1년생을 이용하여도 장기간 피고 지는 변화를 줄 수 있게 디자인 했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품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



1. 평화로광장



2. 서울시의회



3. 청계천



4. 광진구 교통섬



5. 가을에 핀 아스타를 그대로 시공한 경우

우리꽃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년 동계 행복역량교육

매년 연초에 시행했던 워크숍을 2012년부터는 행복역량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내용 또한 새롭게 변화를 주었다. 그동안 연초 워크숍을 통해서 신년 사업계획 위주로 진행되었던 내용을 올해부터는 동계, 하계 연 2회 전직원이 참석하여 현장근무와 이론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상호간의 소통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한 2012년 동계 행복역량교육은 먼저 6일간은 해남농장에서 낮에는 현장 작업을 저녁에는 이론교육을 받고 마지막날에는 신년사업계획 발표와 우수사례, 우수사업장 시상이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오던 대보름행사도 미리 앞당겨 2월 4일날 시행하여 각자의 올해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마당이 되었다. 2월 5부터 7일까지 3일간은 흥천의 대명리조트로 자리를 옮겨와 스키, 눈썰매, 볼링 등 전직원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하계 행복역량교육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이천농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이천시 표창장 수상



당사 박공영 대표는 지난 연말과 2012년 1월 국토해양부와 이천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4대강사업 등 국토해양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표창을 받았으며 이천시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제2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전사적인 행복 건강지수 관리 돌입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건강이 곧 회사의 건강이라는 인식 아래 전사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지수 관리에 돌입했다. 먼저 건강의 최대 적인 금연운동에 돌입하여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고 있으며 점심식사 후 또는 기타 여가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복당사무실, 이천농장, 해남농장에 각각 탁구대를 구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뱃살빼기운동을 벌여 각자의 뱃살을 축적하여 복부비만인 직원들에게 빠른 걷기 등 운동을 통한 건강지수 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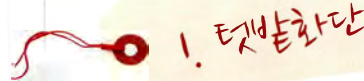
품종등록신청

매년 연구부에서 연구의 성과물로 품종등록을 신청해왔다. 올해도 작년까지 개발해오던 가우라, 코레옵시스, 패랭이 등 28종에 대해 품종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들 품종은 심사기간동안에도 품종보호를 받게 되고 약 1년간의 실사를 거쳐 품종출원 결정을 받게된다.



‘도시농업’이 2012년도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도시농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필요성과 사용법을 짚어보고, 기존 농업 제품들이 아닌 도시농업용으로 특화된 상품들을 찾아 소개해왔다. - 편집자 김민정

텃밭을 가꾸기 위한 필수자재 소개



작은 공간에서 유지관리가 간단한 나만의 정원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도시형텃밭화단을 사용하세요.

텃밭화단은 주위에 도시 안에서 아스팔트나 시멘트 땅처럼 텃밭으로 바꾸기 이용할 흙이 없는 경우 건물 주변이나 옥상, 베란다에서 텃밭과 화단을 꾸미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토양조건이 안 좋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텃밭과 정원에서는 그 곳 토양 질에 따른 다양한 문제(토성, 배수, 영양염류 등)나 잡초 등이 문제가 되기 쉽지만 텃밭화단을 설치하면 관리가 힘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물에 맞춰 토양 조건을 쉽게 바꿔서 재배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로 텃밭을 하기에 좋습니다. 텃밭이나 화단, 그리고 텃밭에 심을 작물, 어디에 설치할 지 등을 충분히 생각하여 각자 타일에 맞는 텃밭화단을 설치하면 됩니다. 가든 베드란 쉽게 말해 화단을 말하는데 나무, 돌,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흙을 채워서 재배나 꽃나무를 가꿀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우드파이버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텃밭화단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데 내구성이 뛰어나고 별도의 도구없이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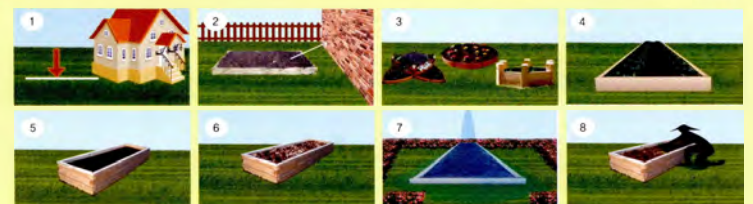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텃밭화단의 장점 외에도 봄철에 땅에서보다 화단의 토양이 빨리 따뜻해지므로 보다 빨리 재배를 시작할 수 있으며, 텃밭은 쉽게 단단해져서 갈아엎기 수월하지 않은 반면에 토양이 부드럽고, 배수환경도 일반보다 좋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보다 쉽게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추천하고픈 수단입니다.

베란다나 마당 등 작은 공간에는 정사각,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베드를 1제곱미터 정도로 설치하고 베드 뒤쪽에 트롤리스를 설치하면 수직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양한 작물을 보다 오랫동안 가꾸는 데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온실형과 하우스형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무를 둘러쌀 수 있는 원형이나 커브형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어 보다 다양한 경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텃밭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작물은 쉬운 것으로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추와 토마토는 손이 별로 가지 않는데다가 따뜻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텃밭화단에서 키우기 적합합니다. 날씨가 선선할 때는 상추와 시금치 등을 키우면 좋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콩, 팥 등이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를 언더터치 모양으로 세우시면 재미있는 정원놀이 할 수 있습니다.



텃밭화단 설치하기



1. 적당한 장소 찾기

먼저 평평하고 경사가 지지 않은 곳을 찾고, 햇빛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합니다. 허브나 채소,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을 기르고 싶으면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도나 물통이 가까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2. 전체적인 크기와 모양을 신중히 계획합니다.

텃밭화단 주변으로 둘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화단을 밟고 다니게 됩니다. 텃밭화단 가운데까지 손이 갈 수 있도록 사방으로 다니는 공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는 보통 15~20cm 정도로 칼퀴로 한번 굽어서 얻을 수 있는 정도면 되지만, 가져다 쓰는 흙이 좋지 않거나 당근같은 근채류를 재배하려면 25~30cm 정도 길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재배할지 결정하고, 텃밭화단의 크기에 따라 흙 양을 결정합니다. 식물 뿌리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3. 텃밭화단 설치하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타입의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텃밭화단을 조립하여 설치합니다. 직접 제작할 때는 나비 15cm 정도의 방부목을 사용하면 가장 일반적이고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꼭 사방으로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4. 토양, 퇴비, 비료 채우기

텃밭화단을 설치했으면 좋은 상태의 토양과 퇴비 유기질 비료 등을 채워 파종하고 식재할 준비를 합니다.



조립식 텃밭화단

구성품

친환경적인 재활용 폴리머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경도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조립식으로 원하는 크기의 화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판이 커브형과 직선형이 있기 때문에 사각형뿐 아니라 원형과 커브형 등 공간 활용 정도에 맞추어 라인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단 위쪽으로 지지대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리방지를 통한 작물보호나 재배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미니 하우스나 티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종류의 조립식 텃밭화단



▲ 미니하우스

▲ 사각발코니가든베드

▲ 사각당굴가든베드

▲ 테이블형발코니가든베드

▲ 어린이모래놀이베드



어디서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상자를 활용하면 재밌고 간단한 텃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텃밭화단까지 부담스럽다면 PP 또는 PE소재로 다양한 규격의 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배 형태의 제품들이 시중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이형 텃밭상자는 주로 옥상텃밭이나 학교에서 단기간 교육을 진행할 때 설치 수거가 간편하여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간단하지만 텃밭 작물이 잘 자라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활 공간 바로 주변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볼거리를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많이 쓰이는 사각과 원형제품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여러 개의 포켓이 달려 포켓 안에 딸기를 심어 조랑조랑 열린 딸기를 시즌 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나, 감자를 심은 후 복주기를 할 필요도 없도록 깊이가 깊고, 아랫부분의 지퍼를 열어 손쉽게 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은 도시 텃밭 가꾸기를 한층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토마토텃밭상자



▲ 정보샐러드텃밭상자



▲ 일반사각텃밭상자



▲ 샐러드채소텃밭상자



▲ 원기텃밭상자



▲ 감자텃밭상자



작물을 재배할 때 많이 쓰이는 멀칭 시트! 농사의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흙을 잘 갈아엎고 나면 작물을 심을 자리에 비닐멀칭을 보통 많이 합니다. 멀칭을 하는 이유는 토양수분과 온도를 잘 보존해주어 작물을 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둑의 흙이 빗물에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시트 속에서는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아 잡초를 뽑을 일도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텃밭 가꾸기에 유리한 환경을 시트 한 장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초봄의 비닐멀칭은 아직은 낮은 지열을 높혀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인데, 비닐을 투과한 빛이 땅의 온도를 높이고 밭이 비닐 속의 온도가 유지되어 뿌리가 빨리 활착되고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밭 잡초로 불리는 여러 들꽃들은 일년생으로 지난해 무성한 종자를 땅에 떨어뜨리고 봄이 오면 햇빛을 받고 다시 발아해서 또다른 생활사를 이어갑니다. 이 때 땅 위에 검은 비닐을 덮어 햇빛을 차단시키면 발아가 되지 않거나 발아가 되더라도 자랄 공간이 없게 됩니다. 또, 멀칭을 하게 되면 두둑의 흙이 쓸려 내려가 점차 무뎌져 낮아지지 쉬운 작업을 방지하여 줍니다. 특히 관수가 어



려운 밭이나 긴 길이가 발생할 경우엔 비닐멀칭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토양이 단단해지고 마르게 되어 식물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식물의 뿌리는 부드러운 흙속에서 가장 생장을 잘할 수 있는데 멀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이 오랫동안 잘 유지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비닐멀칭은 잘못 길어내 버리거나 걷지 않고 토양과 섞여버리면 땅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주말 텃밭 농장의 경우 작물만 수확하고 구멍 뚫린 검은 비닐이 겨울철 하얀 깨끗한 눈밭 사이로 흉물스럽게 남아 보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도시텃밭이 발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면 친환경적인 텃밭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멀칭시트 종류는 주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적당한 식재 구멍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주로 물로 나오지만 집어서 나오는 것, 토양이 잘 숨 쉴 수 있게 미세 구멍이 있는 것,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분해성인 것, 해충 방지를, 잡초 방지용 등이 있습니다.

멀칭재 제품



▲유광



▲다용도pp부직포



▲삼초방지



▲마이크로홀



▲열반



▲병충멀칭



▲생분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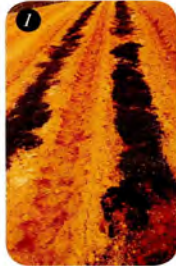


▲부직포 세트

그렇다면 멀칭을 꼭 해야 할까요? 부지런히 매일 텃밭에 가서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1주일에 한 두 번 시간을 내서 가는 초보 농부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텃밭 가꾸는 게미가 생기기도 전에 갈라지는 땅에 불주고 뽕고 뒤돌아보면 또 자라나

는 잡초와 전쟁을 치르다가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칭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은 크기의 텃밭이라면 얼마든지 열정과 나만의 방식으로 가꾸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세요.

멀칭하는 방법



1

잘 정리된 텃밭에 작물을 몇 줄로 심을지 생각하시고, 그 숫자만큼의 두둑을 만듭니다. 멀칭시트는 그 두둑의 폭과 높이를 합친 길이보다 조금 더 여유있는 폭으로 준비합니다.



2

작업은 비가 온 다음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와서 밭 전체에 수분이 있을 때 비닐을 덮으면 수분 유실이 오래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날에 하실 때에는 마른 흙을 직선 후에 덮어주세요.



3

시트를 두둑에 잘 펼치시고, 양 옆을 고정할 때는 고랑의 흙을 피쳐 비닐 위로 덮듯이 하시면 고랑도 잘 정비되고 시트도 깊이 잘 고정됩니다. 또 고정팩으로 먼저 고정시킨 뒤에 하셔도 됩니다.



4

4. 친환경 관리제

친환경 도시텃밭을 위한 맞춤형 관리제품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생각하면 텃밭 사이로 잡자리와 메뚜기를 잡으러 뛰노는 아이들과 상추나 오이를 따서 바로 먹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텃밭을 시작할 때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워보겠다 결심을 하지만, 달려드는 해충들과 웬지 볼품없이 보이는 작물을 보면서 조금은 좌절했지하고 각종 케미컬 제품에 저절로 손이 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안심하고 건강하게 친환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때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국제 유기농 코덱스 규정에 맞는 방제용 허용 자재들도 있으니, 이러한 승인 정도를 확인하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치을 퇴비를 줄 때나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싶을 때 완효성 유기질 비생물비료로 안심하고 유기농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토양 활성제나 약용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추출액과 살충성 미생물로 사람과 자연에 부해하여 살충, 살균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신통 살균제 그리고 동물성 아미노산, 해조, 휴믹산이 들어 있어 영양균형을 생육기간 내내 잘 맞추어 주는 유기농 영양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는 생육기, 결실기 아무때나 처리해도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으며 특히 서리에 입은 피해나 화학 살충제 등에 의한 피해에도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성 성분이 완전분해산물로 고농축되어 있는 유기농 영양제를 사용하면 작물에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데 한가을 흑한기에 추위를 잘 견디며 꽃눈 및 씨눈의 분화와 성장에 관여하여 꽃잎과 씨방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또한, 새싹이 굵고 입자수가 짧으며 절간이 짧아지고, 잎의 개수가 증가하고, 잎이 작고 두텁게 자라며 길가지의 생장이 적어집니다. 이 외에도 낙화 및 꽃떨이 현상을 방지하고 씨방을 비대시키며 세포분열을 촉진합니다. 유기물이 가진 생명의 파편은 작물이 각종 생리활성 물질로 자유로이 전환하므로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고, 작색호르몬으로 전환이 용이하여 착색이 잘되며, 당도를 증가시키고, 저장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모종의 발아 및 생장을 촉진하고, 서리피해, 병해충피해, 살충제피해에서 회복을 물론, 더 건강하고 맛있는 텃밭 수확물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한마디로 작물을 작물답게 건강하게 키워 영양분이 풍부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기농 영양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텃밭 농사를 짓겠다고 다짐하고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별레비는 배추쌈을 먹으며 유기농이라고 뿌듯해 하였던 분들, 이제는 풍성하게 유기농 텃밭을 가꿔보세요.

(자료제공 : 바이오아그로 / 현울인)

완전분해 유기농 영양제제 활용범위





가든조아가 도시농업의 미래를 엽니다!

www.GardenJoa.com



우리꽃에서 한국의 도시농업 문화를 이끌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쇼핑몰 '가든조아'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가든조아'에서는 **옥상/베란다 정원, 텃밭재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취급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아름다운 문화로의 산책, 우리꽃이 함께 합니다.

www.gardenjoa.com
 Tel: 031)712-7001,7119
 Fax: 031)712-7991

2011 이천시 원예치료 프로그램

영업부 류정안 대리



이번 호에서는 이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특집 기사로 실는다.
 (이번 인터뷰는 이천사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친환경원예팀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4. 원예치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나 정신과적 치료로 요구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치료방법이 되고 그와 더불어 예방공간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예방적 차
 원의 치료이며 곧 교육이 됩니다.

5. 현재 이천시에서 진행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내용 및 계획서(신청 방법 및 수강료, 강의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고 추진대상은 도시 소비자 및
 일부 초·중·고 특수학급 학생들이었습니다. 대상자 모집은 일반인의 경우 이
 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후 방문접수를 통해서 선착순 20명으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이천시에서 지원하였으며 교육과정은 원예체험 및 활동과정(4회, 8시간)과 원예
 치료과정(21회, 42시간) 2개의 분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예체험 및 활동과정은
 총 80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였고 원예치료과정은 총 420명의 수강생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현재 2012년도 이천시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총 10회(5월~6월 5회씩 주 1회, 9
 월~10월 5회씩 주 1회)의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참여방법
 은 추후 확정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천
 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친환경원예팀(031-644-4147)으로 문의하시면 됩
 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천시에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배경 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꽃, 채소 기르기 등 재미있고 즐거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원예작물의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천시민의 정서함양 및 소비자 중심형 농
 촌지도사업 구현, 도시민의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화훼류 등 원예작물의 소비촉
 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개개인의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긍정적인 정서적 행동의 변화로 보다 활기찬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원예치료란 무엇인가요?

원예치료란 치료 및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가 치료사에 의해 계획된 식물과 정
 원활동을 매개체로 하는 치료 과정을 의미합니다. 식물과 정원활동은 인간의 4
 가지 측면에 유익을 주는 유용한 치료적 도구입니다.

3. 원예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예로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작업과 연계되는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 재료
 를 통한 흥미 유발 및 관찰력 증진, 이해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그룹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식물과 정원활동을 주제로 편안하게
 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그룹 내의 활동으로 공동
 작업 및 완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측면에서 과정의 완성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소근육 및 대근육 사용을 촉진하는 과제 수행으로 운동 근육 기
 능을 발달시키고 야외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기존 각종 코너에서 주제에 맞게 다양한 식물과 현정들이 소개되어 왔다. 이번 테마시리즈에서는 이들을 총망라하여 식물별, 현정별로 주제 즉 테마를 정하여 다양한 사진을 곁들여 독자들에게 알차게 소개하고자 한다.

라인용으로 좋은 식물

라인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은 대부분 형태적으로 직선형을

띄거나 조밀한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라인용 식물을 적용할 때 그 적용 목적과 대상

지에 따라서 식물을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 크게

분류하자면 일정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화단의 앞쪽에 적용

되는 라인식물이 있는데 대부분 키가 작고 형태가 조밀하고 상록

성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화단 또는 보행로와 경계를 위해 라인식

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키가 작은 관목을 이용한다. 치매의

목적으로 라인식재하는 식물은 대부분 키가 2M이상 되는 관목 또는 식물을 식재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위의 적용 항목별로 꽃이 아름답거나 잎의 질감이 좋거나 품이 안정되면서 수직적인

느낌을 주는 식물 위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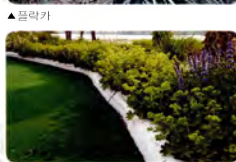
화단 앞쪽식물용

▶ 양지용

상록성 중에서 꽃이 좋은 초종으로는 상록잔디패랭이, 꽃잔디류가 있고 잎의 형태와 질감이 좋은 품종으로는
눈향, 플락카 등이 있다. 알계밀라, 금강애기기린초는 잎의 형태가 조밀하고 품이 안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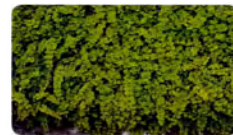
상록잔디패랭이



화단 앞쪽식물용

▶ 음지용

음지에 잘 적응하면서 키가 작고 잎의 색깔과 질감이 좋은 대표적인
초종이 대사초류와 아주가류이다. 각각 품종이 다양하여 현장에 맞게
선택하거나 한 현장에 같이 적용해도 좋다.



▲월금리시마카이

▲대사초 골드라이트

▲아주가

일반적으로 30~100cm사이의 초종으로 잎의 색깔이 좋은 조팝류, 사철나무류 등의 관목류가
대표적이고 직선의 느낌과 잎의 질감이 좋은 물리니아, 새블루마운틴 등 그라스류 등도 경계를
위한 라인용식물로 활용가능하다.

경계용

▶ 다른 화단, 보행로



차폐용

대부분 키가 180~200cm이상 되는 식물로서 완전
차폐용으로 쓰임이 가능한 초종으로 잎의 무늬가 좋은
무늬키버들, 키가 크고 안정된 형태의 억새 등 그라스류,
꽃이 아름다운 붓들레야 등이 있다.



▲무늬키버들

▲억새 그린라이트

▲무늬키버들

▲무늬키버들

대한민국 도시농업 전문가그룹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도시농업팀에서 알려주는 도시농업 제대로 하는 법을 연재로 심는다. -편집자주-

도시농업제대로하기 1

옥상텃밭에 재배하는 작물의 선택

옥상텃밭이란?

비어있는 옥상공간의 농업적 활용을 위하여, 콘크리트라는 인공지반 위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층을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농학박사 정명길
031-290-6149 jeongil@korea.kr

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과 도시의 녹지 감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도시열섬화 현상 등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옥상정원이 많이 조성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편하여 이용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옥상정원이나 비어있는 옥상에 일부를 텃밭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옥상텃밭은 도시공간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옥상텃밭은 일반 텃밭에 비하여 환경과 여건이 매우 다르므로 재배하는 작물을 선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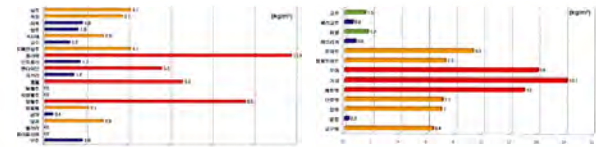
는 데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옥상은 한여름에 강한 광선 때문에 그늘을 좋아하는 음지성 작물의 재배에는 부적합하고 온도가 높아 수분증발이 많으므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의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수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꼭 있어야 하며, 수돗물에 의존하기보다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옥상은 지면에 비하여 바람이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도복의 우려가 있는 키가 큰 작물의 선택에 불리하다. 이외에 재배작물을 선택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베드 및 상자형 옥상텃밭 재배 전경]

채소작물의 선택

옥상텃밭은 가정에서 직접 채소를 기를 수 있으므로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신선하고 청결한 무공해의 부식을 일정한기간동안 꾸준히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택의 기준은 ① 재배하기 쉬운 채소 ② 병해충이 적은 채소 ③ 비료에 대한 작물 쪽이 넓은 채소 ④ 어린육묘부터 이용할 수 있는 채소를 선택하여야 실패가 적다. 예를 들어 봄배추, 파프리카 같이 재배기간 까다롭거나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채소를 선택할 경우 이용자의 의욕이 떨어져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 풍이나 옥수수 같이 한번 심어서 일시에 수확하는 작물은 재배기간 동안 이용자의 관심을 적게 받아 관리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상추, 잎들깨, 방울토마토, 가지와 같이 장기간 자주 수확하는 작물은 수확을 위해 매일 보게 됨으로 관리가 잘 되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국립원예특작 과학원에서 2008~2010년까지



[옥상텃밭 재배작물 및 과채류의 수확량]



[옥상텃밭 재배(상추, 로메인상추, 콜라비, 잎들깨)]



옥상텃밭 과채류 재배(단호박, 가지, 고추, 토마토)

과수작물의 선택

과수는 열매를 감상하고 맛볼 수 있는 즐거움 외에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정원형태의 옥상텃밭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과수는 키가 크게 자라므로 20~40cm 정도의 충분한 토심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설치 전 건축물의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 재배할 과수작물의 선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의 나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① 과실이 맛있는 종류 ② 키가 작아 관리가 편리한 종류 ③ 특별한 관리가 없이 과실이 잘 열리는 종류 ④ 병해충에 강한 종류 ⑤ 지온이나 고온 강한 햇빛 등 불리한 환경에 잘 견디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가 적다. 옥상에서 기르기 쉬운 과수류로는 블루베리, 대추나무, 감나무, 머루나무, 왕보리수 등이다.

옥상텃밭 허브재배



▲옥상의 스피어민트



▲옥상의 헬리오트로프



▲옥상 허브텃밭 전경

허브작물의 선택

허브는 요리나 샐러드를 만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향을 즐길 수 있으며 밀원이나 약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허브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어 옥상공간은 허브를 기르는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허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용목적에 따라 텃밭을 구성하고 텃밭유형에 맞는 허브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텃밭의 이용목적에 따른 유형으로는 허브옥정원, 아로마테라피정원, 샐러드정원, 약용정원, 요리용정원, 염색용정원, 포푸리정원 등이 있다.

국립원예특작 과학원에서 2008~2010년까지 옥상텃밭에서 56종의 허브를 재배한 결과 중부지방(수원) 옥상정원에 월동이 가능한 허브식물은 24종으로 스타팅넷, 램즈이어, 레이디스맨틀, 커먼말로우, 오데코 롱인트, 초코인트, 벨가뮷, 샬러드버넷, 세인트존스스위트, 솜스위트, 야로우, 에키네시아, 오레가노, 옥스 아데이지, 와일드스트로베리, 차이브, 다이어즈캐모마일, 로먼캐모마일, 캣닙, 오렌지타임, 카펫타임, 탄지, 머쉬말로우, 휘버휴였다. 이들은 월동이 가능하며 매년 종묘의 갱신이 없이도 재배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종묘의 구입이 쉬운 종류들이 많으므로 쉽게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는 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아이티와 칠레와 다양한 문화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식물의 다양한 특징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Library, Art Collections, and Botanical Gardens



엔덕에서 바라 본 일본정원



허브정원으로 향하는 향기로운 길

헌팅턴도서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 지역에 위치하며 485,624 제곱미터의 면적에 달한다. 세계각지에서 수집된 다양한 서적, 미술작품, 식물 등으로 유명한 이곳은 1900년대 초에 LA지역에서 철도 사업과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번 헨리 에드워드 헌팅턴(Henry E. Huntington)이 생전에 거주하던 저택이라고 한다. 이곳에 자신이 수집한 희귀 고서적과 고문서들을 전시할 도서관과 예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등을 같이 만든 것이다. 이후, 시에 기증하여 공공정원이 되었다.

에드워드 앨런 포, 셰익스피어의 작품, 쿤텐베르크의 성서와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필 자서전 등이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조셉 말 로드, 윌리엄 터너, 로마스 로렌스 등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곳이 유명한 이유는 도서관이나 미술관보다 주제별로 잘 만들어져 있는 식물원에 있다. 식물원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별 정원과 주제별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정원 등이 있고, 주제별로는 사막정원, 아열대정원, 정글정원, 백합원, 장미정원, 허브정원, 동백정원과 셰익스피어정원, 어린이정원, 온실 등이 있다. 특히 사막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전 세계의 선인장을 수집 재배하고 있다.

이 외에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집해 온 희귀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일부 선인장이나 희귀종 식물을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그 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외에 식물원내에는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북화에서 북화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식물에서 종이와 양말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식물에서 향수 만드는 과정 등의 전시프로그램이 있다. 식물 관찰과 식물 그리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조경 및 환경 디자인 등의 특별 강좌도 있다.

계절별로 어린이캠프와 뮤직 콘서트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기에서도 관람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공원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나지막히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부부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연간 멤버십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산책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인다.